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건 솔 프 란 치 스 코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 오후 6시(학생미사) ·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7월	
				보편 지향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홍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에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마르코 6,34)



△ 그림: www.evangelium-in-leichter-sprache.de

◎제1독서: 예레미야서 23,1-6

◎제2독서: 에페소서 2,13-18

◎복음: 마르코 6,30-34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1. 오늘 복음은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의 시작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 마을로 파견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한 일과 가르친 바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던 제자들에게 외딴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십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외딴 곳에 도착하여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2. 양들에게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목초지를 찾아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하는 연약한 양들에게 목자는 야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이며, 목초지와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끌어 주는 인도자입니다. 따라서 목자 없는 양이란 야수로부터의 아무런 보호도 없이, 목초지와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광야를 떠돌아 다녀야 하는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에 놓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군중들을 예수님께서서는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당신의 필요를 뒤로 밀어 둔 채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본능적으로 착한 목자를 찾고 그 목자 곁에 머무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분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시편23편)

지혜문학: 삶의 지혜를 전해 주는 성경의 책들
⑥(코헬렛)

옴은 가진 것과 집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을 때 넘어설 수 없는 벽인 인생의 신비에 맞닥뜨렸고, 하느님을 만나며 그분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옴과는 반대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다 누리다면, 그는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오늘은 옴과 대조되는 상황에 처했던 코헬렛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헬렛 1장 1절은 코헬렛을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임금” 이라면서 그가 솔로몬임을 말합니다. ‘코헬렛’이란 말 자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어떤 명칭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성경에서는 ‘코헬렛’이라는 단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코헬렛에 사용된 언어를 보면 실제 저자는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권위를 빌리고자 한 후대의 저자로 여겨집니다. 고대에서는 이러한 기법으로 책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웠기에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코헬렛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세상의 온갖 즐거움에 빠져 지내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즐거움은 다 누렸던 것이지요.

“허무로다. 허무!” (코헬 1,2)

그런데 세상 좋은 거 다 누리며 살던 코헬렛이 내뱉은 첫 마디는 ‘허무’였습니다. 사는 데 보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얻고 세상 좋은 것 다 누리다 한들, 죽음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살면서 아무리 무수한 질문을 던진다 한들 대답이 없는 채로 남습니다. 삶은 수수께끼이고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애쓰다 한들, 세상의 질서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헬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8,17)일임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인생을 즐겨라!” (코헬 9,9)

인생의 허무함 앞에 코헬렛은 인생을 즐기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모두 유한한 것일 뿐이며 참된 행복으로는 이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자기의 노고로 먹고 마시며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것’ (2,24)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대치라 말합니다. 영원하지는 않아도 이 유한한 행복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코헬렛이 말하는 행복은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현재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자신이 체험하는 한계를 통해 하느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코헬렛의 메시지입니다.

[행사 이모저모]



△예비신자 교리 중 (강사:범토마스아퀴나스 부제)



△(방역지침 준수하며) 레지오마리아 회합 재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자](7/3~7/15)

고정자안나	서영숙엘리사벳	오문술바로로	전종남사도요한	한규상아오스딩
김순태보나벤투라	손취부요셉	유순애데레사	최미자젬마	황영호스테파노
박다순루시아	송병섭야고버	이복영안젤로	최병선미카엘	
박은규데레사	안인순세레나	이정재요셉	최윤정율리엠타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살상회	전주 농약사	하늘해외여행사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송현귀(요 한) 최금호(요안나)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비전골 명품한우전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로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농약, 종자, 모종, 농자재, 묘목 황인수(요 한) 김효순(루치아) 전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287-4900 H.P. 010-8239-4348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동래분식	남문&mail.남문문구센터	MG남부새마을금고	(유) 쿡뱅크	풍남정
새알팔죽, 팔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30년다들집 양명구(다비드) 이정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672-018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원수관(야고버)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설 옆 ☎283-3352	본점(남부시장) ☎283-7611-3 학산지점(평화동) ☎283-7614-5 홍산로지점(효자동) ☎286-7616-7 이사장 이경춘(마르첼리노) H.P.010-3659-1907	그릇대여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e-mail: jsm1605@naver.com H.P.010-7657-1606 ☎284-1606	전주전통비빔밥 불낙전골, 떡갈비 전문점 박래연, 이현숙 전동성당 후문 H.P.010-3680-2756 ☎282-8754

전 동 계 시 판

● 오늘(7월 18일)은 ‘농민 주일’입니다.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도록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전주교구 농촌사목>

- ▶ 우리농 지킴이 봉헌: 3만원 약정서(성당입구)
- 농산물로 되돌려 받음(8월~9월:본당 성물방)
- ※자세히는 스텝이 뒷면 참조

● 오늘은 사제양성 후원회비 납부의 날입니다.

- 사목회: 오늘(주일)교중미사 후, 윤지충 출
- 예비신자 연중 모집: 예비신자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2022년도 혼인미사 예약접수: 타 본당교우 포함 선착순 접수중이오니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무지개장학재단 2021년도 하반기 장학사업 안내
- *지원대상: 전북지역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부모 가정의 자녀 *신청기간:8/6(금)까지
- *접수: 전주교구청 사회사목국(063-230-1074)

- 문정성당 성전건립을 위한 물품 판매 안내
- * 일시: 다음 주(토, 주일) 미사 전후, 성당 앞 마당
- * 책, 향수, 양초 등

■ 모임시 1단계 방역수칙 준수바랍니다.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계좌입금: 전북은행 1013-01-3079726 천주교유지재단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2021년 초중고 여름신앙학교

- *일시 및 장소: 8/7(토) 전주 성지순례
8/11(수) 물놀이
- *문의: 010-7539-7769(대표교사)
- *참가 신청: 7/25(주일)까지 사무실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7월16일 현재)	587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우리들의 정성(7월5일~7월11일)

주일헌금:	3,721,000	교무금:	4,540,000
감사헌금	장정희(루시아) 100,000	익 명	100,000
	이점옥(데레사) 50,000	익 명	100,000
	이복영(안젤로) 100,000	익 명	1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 (재)천주교유지재단)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남 창 당 한 약 방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철모) 이성숙(안젤라) 전통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이현영(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우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삼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서승희(클레멘시아) 조성휘(안 드 레 아) 진버들6길8-10(아츨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전통한약방 제1호 인증 원장 한광수 전통성당 맞은편 한옥마을 입구 H.P. 010-3653-8586 ☎284-8586